

넥센타이어, “I’m Still Hungry”

유럽 · 미국 UHP 수요증가 … 3회에 걸친 증설로 공급확대 도모

넥센타이어가 2003년 7월24일 UHP(Ultra High Performance) Radial Tire용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한 이후 11월19일, 12월15일에 연달아 Radial Tire용 추가 생산설비 건설을 발표하며 2004년 투자계획을 확정지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에서 Radial Tire, 특히 UHP 타이어의 수요가 급증해 2003년에 비해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센타이어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7월 UHP Radial Tire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1일 UHP 타이어 공급량은 2003년보다 4000개 더 늘어나게 된다.

2004년 10월에는 Radial Tire 생산공장이 완공돼 하루 평균 2000개의 Radial Tire가,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4000개의 Radial Tire가 각각 추가로 생산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신설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현재 2만9000개의 1일 생산능력이 3만9000개로 대폭 확대되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생산능력은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공급이 수요급증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추가로 완공되는 공장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넥센타이어 본사 부지에 신설되며 UHP Radial Tire 공장에 408억, Radial Tire 공장에 595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생산된 타이어의 대부분을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11월 매출액은 238억3800만원으로 고무가격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돼 매출액이 10월 대비 0.35% 증가했으나 고무가가치 타이어로 주력상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년동기대비로는 4.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7>